

## 축 사\*

여러분 이 세미나에서 말하는 것이 영광입니다.

한국에 온 지가 여섯 달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직도 말을 잘 할 수 없지만, 저는 한국말로 인사하고 싶습니다. 안녕하십니까!

한국말로 조금 더 말해 볼까요?

여러분들이 이 세미나 후에는 미국법을 더욱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. 일부 한국법이 일부 미국법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법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한국 법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.

그뿐 아니라 외국 법제도를 공부하는 것은 자기 나라의 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것입니다.

외국법을 공부하는 데 조심해야 할 점은,

- ① 첫째, 외국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고,
- ② 다음, 외국법을 모델로 받아들여서 쓸 때는 그 나라 실정에 맞도록 해야 하고,
- ③ 마지막으로 외국법이 그 나라 실정에 좋을 것 같더라도 그 나라에 꼭 적합한지 생각해야 합니다.

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오신 분들은 이것들을 이해하셔서 한국법 발전에 이바지하시기를 바랍니다.

1971년 2월 20일

국제 법률 센터

버나드 · 죠세프 · 프리드

\* 이 축사는 국제법학원 개최 해외과연 판·점사 제1권 귀국보고 세미나에서 행한 것임.